

광주·전남 미래는 밝다



민주투사 출신 백양사 수장

백양사 방장 지선(69)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최고 책임자. 지난 해 8월 방장 주대, 같은 해 11월 조계종의 인준을 받았다. 80~90년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으며 사회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 등으로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다.



비엔날레 실험적인 전시 기획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제시카 모건(46)

올해 광주비엔날레를 총괄 기획하는 총감독.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큐레이터인 그녀는 올해 주제인 '전진을 불태우라'에 부합하는 혁기적이고 실험적인 전시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생태계 연구 선두주자



전남대 지역환경과학 교수 김명용(51)

국내 해양생태계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 '해양교란 유해생물 연구센터'를 전남대에 유치, 해양 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 해양생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亞문화전당 이끄는 문화전문가



亞문화중심도시 단장 김성일(5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과 개관 등 거칠한 현안을 맡게 된 문화 전문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정책관 등을 역임, 최근 추진단장에 선임됐다.

대학총장협 회장 맡아 공공교육 강화



전남대 총장 지병문(62)

국립대학교 총장으로는 보기 드문 'CEO형 총장'. 전국 국·공립 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고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면서 전국 대학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역감정 연구 주목



조선대 정치외교 교수 지병근(47)

민주주의와 지역 감정 간의 역할에 대해 연구중인 비교정치 전문가. 2010년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부표'라는 논문으로 한국정치학회 논문상을 받아 정치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 환경운동 선봉장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43)

2002년 3월부터 환경운동연합 간사로 환경운동을 펼쳐 왔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 광주전남환경단체 중 최선두에서 반대운동을 조직해왔다. 현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 사무처장도 맡고 있다.

지역 여성운동의 리더



광주전남여성단체 대표 주경미(52)

광주 여성노동자회장 등을 거치며 오랫동안 지역 여성 운동을 주도해 왔다. 최근에는 6·4 지방선거 광주·전남 여성 정치네트워크 상임 대표를 맡아 활동중이다.

재능·기술 기부문화 확산



광주재능기부 사무처장 장우철(47)

지난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재능기부센터를 설립했다. 물질적 기부가 대부분이던 상황에서 운전과 요리 같은 본인이 가진 재능과 기술까지 나누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시민단체 연대운동 NGO센터 수장



광주NGO센터장 서정훈(51)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으로 10여년간 광주 시민단체 연대운동의 최前线에서 활동했다. 이후 사단법인 광주NGO시민재단 부설 광주NGO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근로정신 할머니 아픔 치유 앞장



'근로정신대 할머니' 대표 김희용(55)

지난 2011년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해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해남 출신으로 고향에서 목회활동을 했으며 과거에는 북한 쌀 보내기 운동, 농촌계동운동을 펼쳤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 초대 소장



무등산관리사무소장 안시영(56)

국립공원 무등산의 첫 관리소장을 맡은 산(山) 행정 전문가. 광주 출신. 취임 후 자연원 조사를 통해 야생 동·식물을 2296종을 밝혀내고 탐방로 정비에 나서는 등 무등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치안정감 중 유일한 전남 출신



경찰대 학장 인재경(57)

경찰 내 5명밖에 없는 치안정감 중 유일한 전남 출신이다. 장흥이 고향으로 광주 동신고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행시 31회에 합격해 경찰 으로 특채됐다.

검사장 두루 거친 검찰 대표 인사



법무부 차관 김현웅(55)

고흥 출신으로 광주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찰 내 대표적 호남 인맥 중 한 명. 사시 26회 출신으로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 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내 호남인맥 선두주자



서울 서부지검장 문무일(53)

검찰 내 호남 인맥의 선두 주자. 광주일고·고려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쳐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탁월한 분석력...검찰 차기 리더



대검 형사부부장 조은석(49)

장성 출신으로 광덕고와 고려대를 거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검찰에 입문한 검찰 내 호남인 맥의 차기 리더. 추진력·분석력이 탁월하며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낼 정도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혁신학교 통해 학생 행복 추구



교육부 학생복지인전관 이진석(52)

해남 출신으로 복포고·전남대 영어교육과 졸업. 제38회 행정고시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 시절 경기혁신학교 전도사. 초등 돌봄교실 도입과 운영을 주도해오고 있다.

한국 볼링 발전 토대 마련



대한볼링협회 회장 김길우(65)

전남 출신의 볼링계 수장. 지난해 세계볼링선수권대회서 종주국 미국을 치고 종합우승해 세계를 놀래웠다. 광양시청 볼링팀을 육성해 국대표 감독·선수 등을 배출시킨 대한민국 볼링계의 영원한 지도자.

대한민국 생명과학 권위자



전남대 생명과학기술 교수 최홍식(53)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명과학 연구의 권위자.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에 선정, 국내 처음으로 세계적 생명과학 분야 저널인 JBC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초청된 세계적 작가



서양화가 서정민(52)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특별 전에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초청. 지난해 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인전을 연데 이어 9월에는 마케도니아 오스만뮤지엄 비엔날레에서 골든워드상을 수상했다.

간호사 출신 베스트셀러 제조기



소설가 정유정(48)

합평 출신 작가. 간호사 출신으로 2009년 제5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2013년 장편 '28'을 출간했으며 최근 힐러리 앤니푸르나를 종주한 후 '정유정의 힐러리 앤니푸르나 환상방향'을 펴냈다.

남편 팝핀현준과 국악 대중화 기여



국악인 박애리(37)

국립창극단 단원. 지난해 KBS 국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목포 출신 국악인. 남편이 한국 최고의 춤꾼 팝핀현준과 함께 국악과 힙합의 춤라보레이션 공연을 선보이며 국악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음을 이용한 달빛 오디세이 작곡



작곡가 김현옥(51)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 개막행사 음악감독을 맡았던 작곡가. 음률을 지닌 한국의 고유한 예술을 음악 어법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 '달빛 오디세이'를 광주 대표 문화브랜드로 키우고 있다.

'빛골 아리랑' 연출·뮤지컬 대가



연출가 유희성(57)

광주 출신으로 뮤지컬 '명성황후'의 고종 역 등을 맡았다. 지난해 연출을 맡은 '빛골 아리랑'은 5월 양코르 공연한다. 서울시뮤지컬단장을 거쳐 청강문화산업대학 뮤지컬 스쿨 원장을 맡고 있다.

'응급남녀' 주연 맡은 대세 배우



탤런트 & 영화배우 최진혁(28)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구가의 서'에서 주연 못지않은 존재감을 뿜어내며 급부상한 목포 출신 배우.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응급남녀'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각종 CF에서도 러브콜을 받는 대세남.

광주 시향 재도약 발판 마련



광주시향 상임지휘자 이현세(54)

서울대 기악과 출신으로 미국 미시간 그랜드밸리 주립대학교 지휘 교수를 역임. 대구·포항시립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거쳐 올해 광주 시향 신임지휘자로 부임. 광주시향의 재도약을 이끌고 있다.

시국미사 개최하며 대통령에 일침



천주교 평화위원회 신부 이영선(5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과 관련, 지난해 낭동 5·18 기념성당에서 33년 만에 시국미사를 열고 매달 특강을 진행했다. 올 초에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했다.

부적응 학생과 같이 살며 지도



광주동부교육청 과장 박주정(51)

공교육 대안교육시스템 '금란 교실'을 도입하고 대안교육 위탁 기관 '응연학교·损보스코' 창립을 주도했다. 사제로 광주 근교 폐가를 개조해 학교부적응 학생들과 10여년간 기숙하고 있다.

미디어 아트로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42)

'제1회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총감독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었다. 최근 대안항공, 아모레퍼시픽, 푸조, 포스코 등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광주미술인 화합·지원 적극 추진



광주미술협 10대 회장 나상옥(57)

광주지역의 미술인들의 수장. 지난해 말 미술협회 정기총회에서 무투표 당선됐으며, 미술인들의 화합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지역에 맞는 미술 정책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광주 대표 '여자 신궁'



양궁 국가대표 이특영(25)

광주를 대표하는 여자 신궁. 인천아시안게임 양궁 대표 평가전 선수주자로 출전권을 확보하면 금메달 획득 유력. 지난 5년간의